

[Press Release] 총 9쪽

정현두 개인전 《서서히, 그림자 다리 숨은》

정현두 · 서서히, 그림자 다리 숨은

숨은

2024. 1.10 – 1.31



서

서히,

지름도
다리

A-L

2F 45 Baekseok-dong 1ga-gil,
Jongno-gu, Seoul, Korea
+82-2-395-8135
Tuesday to Saturday
11:00 - 18:00
Sunday & Monday Closed
<http://a-lounge.kr>
info@a-lounge.kr



- 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3 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정현두 개인전
- 회화가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다른 그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실험하는 전시
- 사무실 내부에 전시된 작업을 포함하여 총 18점의 작품으로 구성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서서히, 그림자 다리 숨은》

참여작가: 정현두

일 정: 2024년 1월 10일(수) - 1월 31일(수)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관시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최하림 어시스턴트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전시 내용

정현두 개인전 《서서히, 그림자 다리 숨은》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정현두는 무한히 변화하고 확장하는 유기체로서의 회화를 지향한다. 숲을 주제로 했던 초기 작업에서 뾰족이 들어찬 나무를 앞에 두고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르겠는 일종의 감각 과잉 상태를 경험한 뒤 오히려 바라보기의 행위를 포기했다. 시각을 배제하자 신체에 와 닿는 감각에 집중할 수 있었고 비로소 대상의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현두의 작업은 이차원의 평면에 고정된 대상을 그리는 것에서 점차 요원해졌다. 캔버스와 작가 사이에는 붓을 든 신체만이 남아, 직관에 따라 붓질을 하고 그 흔적에 반응하며 작가의 감각적 판단을 더해 즉흥적 움직임만으로 작품을 완성해왔다.

최근 정현두는 캔버스의 프레임 안에 완결된 작업을 담아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하여 확장하는 회화 이미지를 탐구하고 있다. 《서서히, 그림자 다리 숨은》전은 회화가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다른 그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실험한다. 작가는 그림과 그림, 화면과 화면 간의 거리 또는 간극을 통해 어떤 이미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증명한다. 간격 없이 나란히 세워져 하나의 큰 화면을 이루는 <서서히>, <구름이 되고>, <우리의 몸과 신체>, <그림자가 숨은>은 한시적으로 결합되어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 그리기의 사건들을 하나의 '지연된 서사' 속에 연쇄시켜 오히려 그들 간의 명료한 시차를 흐릿하게 하는 새로운 보기 혹은 보여짐의 방식을 제안한다

전시는 사무실 내부에 전시된 작업을 포함하여 총 18점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전시 서문은 안소연 미술비평가가 맡았다.

○작가 소개

정현두 (B.1987)

정현두는 고정된 대상을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는 순수 조형 요소로서의 회화의 방향성을 탐구한다. 아트스페이스 형(2017), 위켄드(2018), 스페이스윙앤딩링(2019)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Land Play》(킵인터치, 2017), 《당신의 삶은 추상적이다》(아트스페이스 3, 2019), 《견고하고 유연하게》(카달로그, 2021), 《물질 구름》(아트스페이스 3, 2022) 등의 단체전에도 활발히 참여해왔다.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졸업한 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2020년에는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 전시 서문

나의 밤

안소연, 미술비평가

*

그의 그림은 밤에 쓴 일기 같다. 언젠가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 혹은 이미 사라진 형상들에 대하여 어떻게 다시 떠올려야 할 것인지, 그런 바람이 독백으로 쏟아낸 비밀처럼 빼곡하다. 내가 그의 그림을 두고 (쓰여진) 글 같다고 그에게 말했던 것은, 순전히 언어에 대한 나의 지독한 회의와 의심에서, 그리고 그것의 공명하는 힘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됐다. 종이 위에 쌓아 올린 글자들로, (침묵처럼) 비어있는 행간들에 둘러싸인 글(자)들은, (망상에 사로잡힌) 사적인 형상을 가진 그림과 같다. [이 문장을 쓸 때, 나는 소설 『여름비 La pluie d'été』에서 에르네스토와 그의 동생들이 발견한 “불탄 책”의 형상을 (글로) 머릿속에 떠올렸다.] 정현두의 회화는 사적인 형상들이, 어쩌면 서로 결합할 수 없는 단어-기억들, 사건들, 형태들, 물질들-이 돌연한 결합을 꾀한 것처럼, 기이한 침묵, 아니 무모한 의미의 박탈을 동시에 보여준다. 본래의 기억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육체)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려는 듯, 밤의 기록은 자신을 넘어선, 오직 “쓰기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형상을 (간신히) 현전하게 하는 내막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회화는 “어떤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미 해석 불가능한 임의의/익명의 형상을 지닌 단어로서, 그것을 읽는다는 것/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테다. [잔혹하게 훼손된 “불탄 책”의 깊은 고립처럼.] <서서히>(2023)와 <구름이 되고>(2023), <우리의 몸과 신체>(2023), <그림자가 숨은>(2023) 같은 제목은, 그러한 (불완전한) 낱말 안에 공명하는 형상들과 대면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속으로 상황을 이끈다. 그의 신중한 붓질이 만들어 놓은 “평면”은 (읽기 힘든) 단어들로 얽혀 있는데, 말하자면 “그러진” 형상들은 어떤 단어를 모방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둘[형상과 단어] 간의 반영 혹은 침투, 분리 같은 것에 의해 (아무도 모를) 둘만의 사적인 대화를 구축해 놓는다.

그는 세 번째 개인전 《얼굴을 던지는 사람들》(2019)에 관한 글을 써서 그의 그림을 이루는 “물질적 살”과 “관념적 살”을 대비시켜 놓았다. 관념적 살은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로서 붓질을 견인하며, 물질적 살은 “붓질로 채운 화면” 위에 옮겨 자리한다. 이때, 정현두는 첫 개인전 《무지개를 쓴 사나이》(2017)와 두 번째 개인전 《밤과 낮의 대화》(2018)를 함께 언급하면서, “물질적 살과 관념적 살의 경계를 유희”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 붓질[살]로 채운 “화면”을 하나의 “인물[살의 덩어리]”로 상상하게 되었다는 화가로서의 속내를 밝혔다. 결국 《얼굴을 던지는 사람들》에서는, 그와 익명의 그림[인물] 사이를 관통하는 사적인 대화가 그림과 그림, 즉 익명의 얼굴과 얼굴 사이를 통과하는/침투하는/벌려놓는 개별적인 단어들로 공명하면서 어떤 형상들을 주고받는 암묵적 관계에 대하여 용인해준다. 그러한 이미지의 출현은 사적이며, 동시에 “봄”과 “보여짐”의 지속적인 관계(의 역량) 속에서 마주하게 될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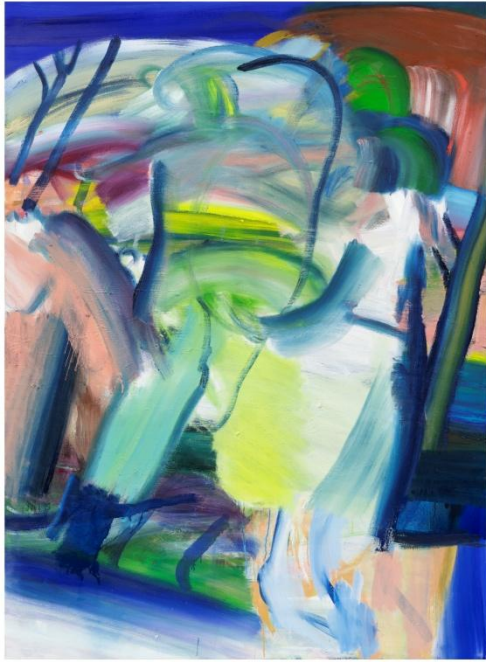
고, 바위 같고, 나무 같고, 팔 같은 어떤 형상들이 “보이기 위한” 태세를 취하고 있다. 정현두가 말하는, 화면 위에 물질[재료]로서 실현된 이 “살”은 덩어리를 이루어 내면서 (재현과는 먼) 감각할 수 있는 무엇으로 비로소 “표현”된 것이다. 마치 이 그림과 마주한 육체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 이미지처럼, 이러한 “다가감”과 “드러남”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자신과 그림 사이의 거리에 관한 감각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그것을 매개하는 붓질이 있다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와 화면 위에 남겨진 흔적은 가능하기 어려운 “거리”를 갖는다. 마치 철학자의 말대로 이미지가 어떤 원형으로부터 필연적인 거리를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정현두는 (어떤 원형의 이미지를 보유한) 자신의 신체와 (어떤 원형의 흔적을 쫓는) 회화 사이의 간극/공백을 의식한다.

“서서히, 그림자 다리 숨은”이라는 낱말의 결합이 만들어낸 그의 그림의 내막은, 이 필연적인 거리/간극/공백에 기인한다. “얼굴을 던진다”는 말 또한, 그 문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그는 최근의 작업에서 화면과 화면 사이, 얼굴과 얼굴 사이, 그러한 감각 사이의 주름 같이 접혀 있는 간극을 이리저리 살피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서서히, 그림자 다리 숨은”이라는 문장을 다시 해체하여 낱말이 살필 때, 그의 그림 전체 안에서 수평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평면 위에 쌓아올린 물질 및 형상 간의 시차와 간극과 중첩을 목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닌 척 하다가 이렇게 되었네>와 그 옆에 수직으로 잇닿은 벽에 걸린 <폭풍우 구름 주먹 속의>(2023)는, 서로 어떤 정황 속에 마주한 것처럼 익명의 사건을 일으킬[미래] 태세다. 아니면, 그것의 실패[과거]일 수도 있고. 이 두 그림 사이에서 내가 겪게 된 복잡한 심경을 뒤로 하고, 나는 <폭풍우 구름 주먹 속의> 앞으로 바짝 다가가 단일한 시선 속에 그림을 마주해 놓고 조금 더 집중해 보기로 한다. 그는 대체로 작업을 빨리 끝내지 못하고, 어떤 시간의 유예 속에서 종종 시차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만 아는 시간, 그 익명의 시간이 그림의 제목이 되곤 한다. 이때 그가 저 평면의 캔버스에 남긴 시간의 흔적은 “물질”과 “제스처”로 추상화 된다. 크고 납작한 붓으로 화면을 비스듬하게 지나간 움직임, 어떤 형상의 윤곽을 닳거나 미완성의 이미지처럼 보이는 선의 이동, 정지와 선회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상한 겹침과 은폐, 물질과 힘의 작용이 만들어낸 미세한 요철 사이로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역동적인 명암까지, 이 모든 것이 뒤엎켜 마치 뼈대와 살이 해체와 구축을 반복하며 만들어낸 화석처럼 수수께끼 같은 평면/표면을 환기시킨다.

한쪽 벽에 어떤 거리를 두고 나란히 걸린 <나무 다리 몸과 마음>(2023)과 <희망을 찾는 척>(2023)도 마찬가지다. 정현두는 붓질을 매개한 신체의 행위가 (마치 그대로 사진처럼 전사되듯) 새로운 물질을 얻어 평면 위에 (그 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출현시킬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회화적 조건을 따지는 것 같다. 화가의 행위와 회화 위의 추상적 이미지가 어떤 공통의 형상을 공유/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적인 낱말들을 (이리저리) 배열하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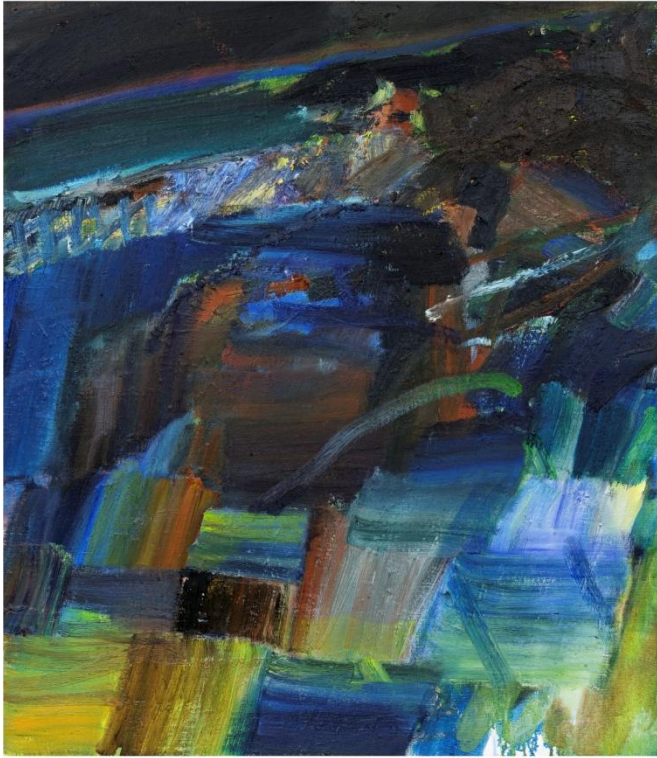
○ 대표 작품



<아닌척 하다가 이렇게 되었네 23.01.12-11.26>, oil on canvas, 193.9x130cm, 2023



<나무 다리 몸과 마음 23.08.03-11.30>, oil on canvas, 193.9x130cm, 2023



<몸과 마음 23.10.12-12.17>, oil on linen, 116.8x91cm, 2023



<23.06.20-09.30>, oil on canvas, 72.7x50cm, 2023



<그림자 다리 23.10.12-12.24>, oil on canvas, 127.4x46cm, 2023



<23.07.20-09.30 폭풍우 구름 주먹 속의>, oil on canvas, 72.7x60.6cm, 2023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 Courtesy of A-Lounge, Seoul**

*모든 이미지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3rK9XqhV9ROS8ad8Dtg69LkUf8D1zK>